

전자산업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 규 재
본회 조사부 대리

1. '96년도 월별 무역수지 현황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93년 1월 전년동월비 1.2% 감소한 이후 42개월만인 지난 7월에 3.1%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금년 7월 현재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한해의 1백억6천 1백만불을 상회하는 1백3억5천만 불을 기록하여 무역수지 적자방어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금년 무역수

지 적자 수정치인 120억~130억 달러도 넘어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큰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우선 세계교역 증가율 둔화 등 전세계적인 수출여건 악화와 지난 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엔저 영향의 가시화로 철강, 석유화학 등의 수출이 부진하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계속된 가격 하락으로 급격한 하강곡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소비의 증가로 내수용의 수입

증가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된 원인중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2. '96 상반기 업종별 무역수지 현황

지난 상반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수출 650억불, 수입 727억불로 나타나 76억5천만불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 한해의 100억불의 76%에 해당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 7월 20일까지 집계된 실적은 103억5천만불의 적자를 보여 전년한해 실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무역수지 적자가 큰폭으로 증가된 것은 전자산업과 섬유 산업을 제외한 타 산업의 무역수지가 큰폭의 적자를 기록한데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 및 석유화학은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수요가 계속 침체되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6 월별 무역수지 현황

구 분	수 출	증감율	수 입	증감율	무역수지
'95	125,058	30.3	135,119	32.0	△10,061
'96. 1	9,950	28.2	12,055	34.5	△2,105
2	9,928	17.8	11,479	16.0	△1,551
3	11,764	17.7	12,152	4.2	△388
4	10,695	5.3	12,674	14.3	△1,979
5	11,332	6.4	12,685	7.3	△1,353
6	11,432	1.7	11,707	△1.1	△275
7	10,156	△3.1	12,855	13.7	△2,699
합 계	75,257	9.3	85,607	11.8	△10,350

주 : 7월 실적은 잠정치임(통상산업부)

구 분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95	'96.상 증감율	'96.상 증감율	'95	'96.상 증감율	'96.상 증감율	'95	'96.상 증감율
전 체	125,058	303	65,101	11.6	135,119	320	72,751	11.5
전자산업	43,592	40.9	21,532	27	25,072	344	13,178	△87
화 학	8,357	39.7	4,080	△23	25,297	338	13,636	94
기 계	23,527	34.9	13,395	27.0	31,761	29.2	15,885	20
철 강	10,351	28.8	4,483	△188	13,602	425	6,907	127
섬 유	18,383	64	8,827	△4.0	5,154	255	2,474	△08
기 타	20,848	-	12,784	-	34,233	-	20,671	-
							△13,385	△7,887

이와 같이 수입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국내소비의 증가세 및 주요 기초 원자재의 할당관세 인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반기중 수입증가율이 수출용의 수입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국내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원자재, 자본재 및 소비재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자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수출1위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96 상반기 전자산업 무역수지 현황

1) 총괄

지난 상반기 전자산업의 무역수지는 83억5천4백만불의 흑자로 전년동기비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반기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76억5천만불의 적자를

기록한데 비하여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로는 반도체가 53억7천4백만불로 가장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가정용기기 32억6천7백만불, 그리고 일반부품 12억1천1백만불의 순으로 나타났고 산업용기는 전년동기보다 4천6백만불이 늘어난 14억9천8백만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업용기기는 의료기기 및

계측기 등의 수입이 많아 적자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도체는 최근 수출이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지난 상반기중 무역수지는 전년 한해 130억불의 약 40%에 불과한 53억불의 흑자를 기록한데 그쳤다.

또한 가정용기기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생산국에 걸맞게 상반기 수출이 40억불로 나타났는데 수입은 7억8천만불에 불과하여 32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일반부품도 상반기중 전년동기보다 3억8천만불 증가된 12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산업용 전자기기

전자산업중 부분별로 볼때 유일하게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산업용기기는 지난 상반기 수출이 38억불로 전년동기비 11.2%의 성장율을 보였는데, 주요 품

(단위 : 백만불)

구 分	'96 상 반 기			'95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한 국 전 체	65,101 (58,328)	72,751 (65,265)	△7,650 (△6,937)	△10,061
전 자 산 업	21,532 (18,944)	13,178 (11,965)	8,354 (6,979)	18,520
산 업 용 기 기	3,804 (3,421)	5,302 (4,873)	△1,498 (△1,452)	△2,546
가 정 용 기 기	4,053 (3,750)	786 (816)	3,267 (2,934)	6,239
반 도 체	10,321 (8,959)	4,947 (4,290)	5,374 (4,669)	13,038
일 반 부 품	3,354 (2,814)	2,143 (1,986)	1,211 (828)	1,789

주 : ()는 전년동기 실적임.

구 분	'96 상반기			'95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무역수지
전 자 산 업	21,532(18,944)	13,178(11,965)	8,354(6,979)	18,520
산 업 용 기 기	3,804(3,421)	5,302(4,873)	△1,498(△1,452)	△2,546
유 선 전 화 기	91(95)	9(9)	82(86)	182
교 환 기	44(39)	21(25)	23(14)	14
전 신 기 기	171(145)	1(2)	170(143)	324
무 선 전 화 기	183(292)	230(144)	△47(148)	278
컴 퓨 터 및 주변기기	2,296(1,857)	1,981(1,603)	315(254)	1,072
전 자 용 기 기	217(162)	508(588)	△291(△426)	△782
계 측 기	54(68)	464(450)	△410(△382)	△959
기 타	748(763)	2,088(2,052)	△1,340(△1,289)	△2,675

주 : ()는 전년동기 실적임

목별로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전년 상반기 대비 23.6%의 견조한 수출 실적을 보였고 교환기, 전신 기기가 각각 12.8%, 17.9%의 성장을 나타냈다.

이밖에 무선전화기는 휴대폰의 수출이 저조하여 전년동기비 37.3%의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 1억8천만불을 기록하였고 계측기도 전년 상반기대비 20.6%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다.

산업용기기의 수입은 지난 상반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20억달러에 육박하는 실적을 나타냈고 휴대폰의 수입도 큰폭의 증가를 보여 무선전화기는 전년동기비 59.7%의 급격한 신장을 나타냈다. 이는 컴퓨터의 국내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HDD 등 컴퓨터 주변기기의 수입이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모토로라, 노키아 등 외국의 휴대폰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용기기의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상반기 15억불을 나타냈으며, 전년 한해 동안의 25억

불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이러한 상태가 하반기까지 계속된다면 금년 무역수지 적자폭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가정용 전자기기

가정용기기의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8.1% 증가한 40억불로 나타나 부문별 가장 낮은 성장을 보였다.

이는 음향기기 및 전자렌지의 수출이 전년동기비 각각 15.9%, 7.9%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낸

데 기인하며 VCR도 8%대의 한자리수 성장에 그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C-TV가 28.5%, 에어컨 34.4%, 냉장고 31.1%, 세탁기가 29.1%의 높은 수출 신장을 나타냈는데 이는 가전제품의 대형화, 고급화에 따라 금액상으로 증가한 것이며, 물량으로 보면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가정용기기의 수입은 음향기기가 지난 상반기중 3억불로 나타나 가정용기기 총수입의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냉장고가 3천4백만불, 전자렌지 및 에어컨은 수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가정용기기의 무역수지의 전년 한해 동안 62억불의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금년 상반기에는 32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로 전자산업 전체 무역수지 흑자 83억불의 40%에 육박하여 전자산업은 물론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위 : 백만불)

구 분	'96 상반기			'95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무역수지
전 자 산 업	21,532(18,944)	13,178(11,965)	8,354(6,979)	18,520
가 정 용 기 기	4,053(3,750)	786(816)	3,267(2,934)	6,239
C - T V	1,064(828)	15(10)	1,049(818)	1,797
V C R	703(650)	27(39)	676(611)	1,436
음 향 기 기	822(977)	306(311)	516(666)	1,366
전 자 렌 지	373(405)	-(-)	373(405)	768
에 어 컨	242(180)	-(-)	242(180)	303
냉 장 고	253(193)	34(31)	219(162)	340
세 탁 기	133(103)	7(6)	126(97)	211
기 타	463(414)	397(419)	66(△5)	18

주 : ()는 전년동기 실적임

(단위: 백만불)

구 분	'96 상반기		'95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무역수지
전 자 산 업	21,532(18,944)	13,178(11,965)	8,354(6,979)	18,520
반 도 체	10,321(8,959)	4,947(4,290)	5,374(4,669)	13,038
I C 기 타	9,767(8,531) 554(428)	3,806(3,162) 1,141(1,128)	5,961(5,369) △587(△700)	14,352 △1,314

주 : ()는 전년동기 실적임

4) 반도체

전자산업 수출중 약 48%를 차지('96 상반기 기준)하는 반도체의 수출은 금년초부터 가격이 하락되어 '95년말 50~53 달러선을 유지했던 16MDRAM의 가격은 7월말 현재 9~11달러선까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일 반도체 업계의 생산량 축소가 잇따라 지난 6월중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비 30%의マイ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상반기중 반도체의 수출은 103억불로 전년동기비 15.2%의 저조한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지난 7월중에도(7월 20일 현재) 전년동월비 37%의マイ너스 성장을 나타낸 것으로 잠정 집계되어 금년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비 큰폭의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다.

수입은 지난 상반기중 49억불로 전년대비 15.3%의 증가율을 보여 반도체 부문의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53억불로 전년 한해의 130억불과 비교해 40%에 불과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전자산업은 물론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처럼 반도체 수출경기의 부진은 메모리 반

도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반도체 구조를 고려해 볼때 심각한 상황이며,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비메모리 분야로의 구조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5) 일반부품

전자산업중 반도체를 제외한 일반부품이 지난 상반기 수출은 33억5천만불로 전년동기비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CRT가 10억천4천만불로 전년동기비 36.6%의 높은 성장을 보였고 자기테이프도 13.3% 증가한 5억3천만불의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고

이밖에 축전기, PCB, 튜너, LCD 등도 소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항기 및 스피커는 전년동기비 각각 5.3%, 6.3%의マイ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부품의 수입은 지난 상반기 21억불로 전년동기비 7.9%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그중 CRT, 자기헤드, PCB가 전년동기비 각각 34.6%, 15.1%, 17.6%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LCD는 3천4백만불로 전년동기비 32.0%의 감소를 보였고 저항기, 축전기, 자기테이프 등도 소폭 감소하였다.

따라서 일반부품의 상반기 무역수지는 12억불의 흑자를 보여 전자산업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자기테이프가 4억6천만불, CRT가 3억8천만불의 흑자를 기록했고 PCB, 자기헤드, 스피커 등도 무역수지

(단위: 백만불)

구 분	'96 상반기		'95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무역수지
전 자 산 업	21,532(18,944)	13,178(11,965)	8,354(6,979)	18,520
일 반 부 품	3,354(2,814)	2,143(1,986)	1,211(828)	1,789
C R T	1,041(762)	657(488)	384(274)	560
저 항 기	36(38)	71(97)	△35(△59)	△108
축 전 기	146(139)	168(184)	△22(△45)	△78
P C B	191(180)	107(91)	84(89)	191
튜 너	134(100)	83(75)	51(25)	80
자 기 헤 드	219(212)	137(119)	82(93)	175
자 기 테 이 프	536(473)	68(87)	468(386)	820
스 피 커	119(127)	55(61)	64(66)	132
소 형 모 터	85(54)	106(98)	△21(△44)	△93
L C D	98(61)	34(50)	64(11)	48
기 타 부 품	749(668)	657(636)	92(32)	62

주 : ()는 전년동기 실적임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저항기, 축전기, 소형모터 등은 아직도 수입부문

의 규모가 커 무역수지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 42개월만인 7월중 총수출 3.1% 성장
- 7월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 103억 7천만불 적자
→ '95년 한해의 적자폭 100억6천만불 상회
- 상반기 중 전자 및 섬유를 제외한 타업종 무역수지 적자폭 증대

	'96상반기	'95상반기
전자	8,354백만불	6,975백만불
섬유	6,353백만불	6,698백만불
화학	-9,556백만불	-8,274백만불
기계	-2,490백만불	-5,022백만불
철강	-2,424백만불	-610백만불

- 상반기중 내수용의 수입 증가율이 수출용의 수입 증가율 상회
- 상반기 전자산업 무역수지 현황

	'96상반기	'95상반기
전자산업	8,354백만불	6,975백만불
산업용	-1,498백만불	-1,457백만불
가정용	3,267백만불	2,934백만불
반도체	5,374백만불	4,669백만불
일반부품	1,211백만불	829백만불